

2014. 11.28(금)

계룡시 세미나

계룡시 (생활)체육발전에 대한 의견

1. 최근 “행복”과 “건강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.

- 최근 국가나 충남, 계룡시는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보다 시민의 직접적인 삶과 관련된 **행복과 건강**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- 계룡시 “**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**”에도 행복이 주요 키워드입니다.
- 그럼... 계룡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?
저는 **신체적 건강**과 주민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**커뮤니티(공동체)**라고 생각한다.
- 이런 의미에서 생활체육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.
- 생활체육은 건강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, 공동체의식(발제문에도 제시한 생활체육 공동체)을 높일 수 있는, 가장 좋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2. 계룡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합시다.

-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, 단순한 100세가 아니라 건강한 100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일상적인 **생활 속에서의 지속가능한 건강유지**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- 특히, 우리는 생활속에서의 체육, 지속가능한 건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이에 무엇보다도, “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”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이런 관점에서 계룡시는 어떤가요? 계룡시와 우리 의회, 시민들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
- 이를 위해서는 계룡시의 연령별·성별 인구구조, 이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등 **종합적으로 검토·분석**하는 것이 요구됩니다.
- 이를 바탕으로 “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시설 활성화” 즉, **생활체육시설**에 서부터 각종 **프로그램** 까지 재검토하고, 향후 계룡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.

3.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부대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.

-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계룡시는 국방도시입니다.
- 군부대의 시설도 좋습니다. 이런 시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야 합니다.
- 물론 지금도 계룡시의 일부 군부대는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생활체육의 관점에서 군과 민관이 서로의 공통점을 함께 찾는다면, 더 많은 아이디어와 방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예를 들어 단순한 군 체육시설의 개방뿐만 아니라 **군과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**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4. 학교(엘리트) 체육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, 그 기능과 역할에서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, 계룡시의 엘리트 체육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
저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말보다는 “학교체육”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. 그 방향은 “운동하는 학생, 공부하는 선수”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.

- “운동하는 학생”이라는 사고가 높아질 때,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, 아닌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체육은 당연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.
- “공부하는 선수”의 관점에서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 시킬 때 지금까지 제시된 엘리트 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계룡시가 장애인 체육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-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.